

# 건강을 지키는 현장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 지역사회 노인 복지에 앞장서는 “은천노인복지회”



▲ 무의탁 노인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



▲ 노인들의 공동작업장



▲ 후원회원과의 만남의 자리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노인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노인문제는 과거 가족제도에 대한 항수 같은 것으로는 이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실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으나마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 식사, 소일거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은천노인복지회(회장 : 이병만·동대문구 장안동).” 노인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는 이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 건강을 지키는 현장

## ○ 노인 위한 다양한 서비스 마련

은천노인복지회는, 지역사회 내의 무의탁 노인과 일반 재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되었다.

복지회는 현재 동대문구와, 중랑구·성동구 일부 지역을 주 대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펴고 있다.

이들이 하는 노인들을 위한 주된 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 결연 및 상담, 가정방문, 보건 서비스, 자원 봉사대 운영 등 재가 노인 봉사 사업과 의료, 목욕, 기능회복 훈련, 급식, 취미교실 운영, 이용·미용서비스 등의 주간 보호 사업, 구인·구직 상담, 공동작업장 운영 등 고령자 취업 알선 등이다.

은천노인복지회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86년에  
설립되었다.

(사진 ; 무료급식을 위한  
경로식당 현판식)



## ● 자원봉사자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들이 이 많은 사업을 벌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국고보조와 후원금을 합쳐 6,300여만원 정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항상 빠듯해 부족한 직원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복지회 노일래 과장의 설명이다.

현재 은천노인복지회의 자원봉사자는 가정봉사자 30여명, 결연자 70여명, 무료급식 봉사자 100여명, 이·미용사 20여명, 물리치료사 15명 등이다. 전문분야를 빼면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이고, 의료부분의 내과·치과 전문의가 주1회 정도 진료를 맡아주고 있다고 한다.

# 건강을 지키는 현장

## ◎ 지역 내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 급식

이들의 사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무료급식 서비스”. 지역 내의 결식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일이다. '90년 한해동안 1만2천여명이, '91년에는 1만8천여명의 노인이 이곳에서 무료 급식을 받았다.

또한 복지회는 노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적당한 취업을 알선해주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밥따기, 젓가락 끼우기 같은 단순한 일을 마련해 여가선용과 용돈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최고. 아쉬운 것은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선입관 때문인지 취업자리가 잘 나서지 않는다는 것.

## ◎ 노인복지 담당 기관이 너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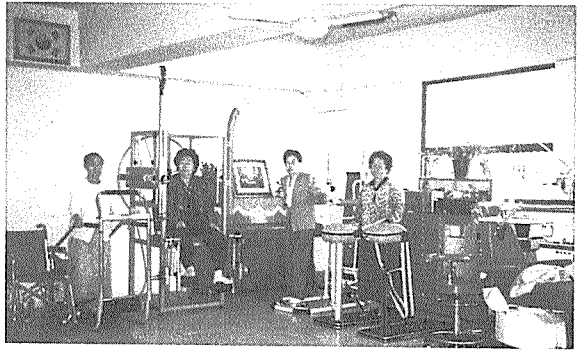
그러나 좀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노인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노인정이 지역마다 있긴 하지만 낮시간의 소일정도이고 적극적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곳은 현재 남·중부 노인종합복지관과 은천노인복지회 등을 비롯해 서울에는 4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방에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자원봉사자들과 후원  
회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복지회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 : 노인들의 이·미용  
시간)



# 건강을 지키는 현장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노인 스스로의  
노력이 노인복지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이다.  
(사진 ;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들)



## ○ 사회적 인식 변화가 노인복지 정책의 우선 과제

한편 노일래 과장은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우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로사상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노동가치적 측면에서조차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로 과거 역사적 배경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더 확대되고, 예산과 시설 측면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 많은 분들의 따뜻한 후원을 기대한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여건이 허락된다면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노인들을 위한 보건강좌 마련도 계획하고 있는 은천노인 복지회는, 현재 많은 관심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가정봉사, 노력봉사, 물품봉사, 현금봉사 등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은 모두 기꺼이 받는다. 봉사활동에 참가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은 전화, 서신, 방문신청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은천노인복지회(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321-6, 전화 214-6393, 249-7253)로 하면 된다. 72